

**당선작** (주)해안중건축사사무소 김태만 설계팀 변남일, 권오탁, 김용기, 이준우, 권태왕, 정현기, 김경열, 아이삭 그레이, 김나연, 이형숙, 김성겸, 이승준, 박영필, 오재민, 김나은, 조동희, 송승원, 김선아, 김정민, 노태호, 고우현, 황윤하, 한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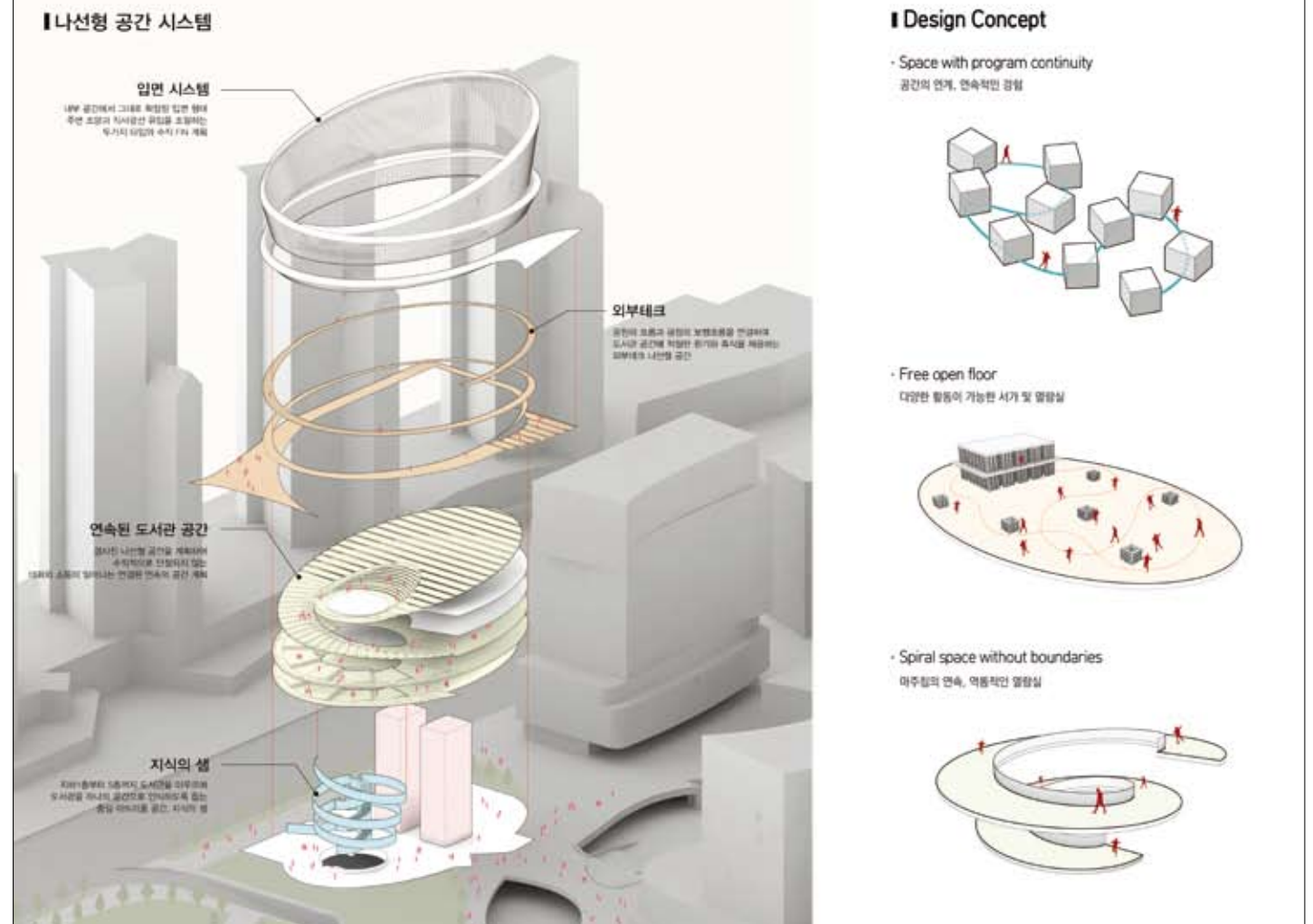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4') 대지면적 6,824.00㎡ 건축면적 4,054.51㎡ 연면적 30,990.39㎡ 조정면적 1,475.87㎡ 건폐율 59.42% 용적률 169.47% 규모 지하 4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 마감 알루미늄시트, 루버, 로이삼중유리 협력업체 구조 - 신화, 기계 - 씨엔아이, 소방 - 한백, 전기 - 일신, CG - 3D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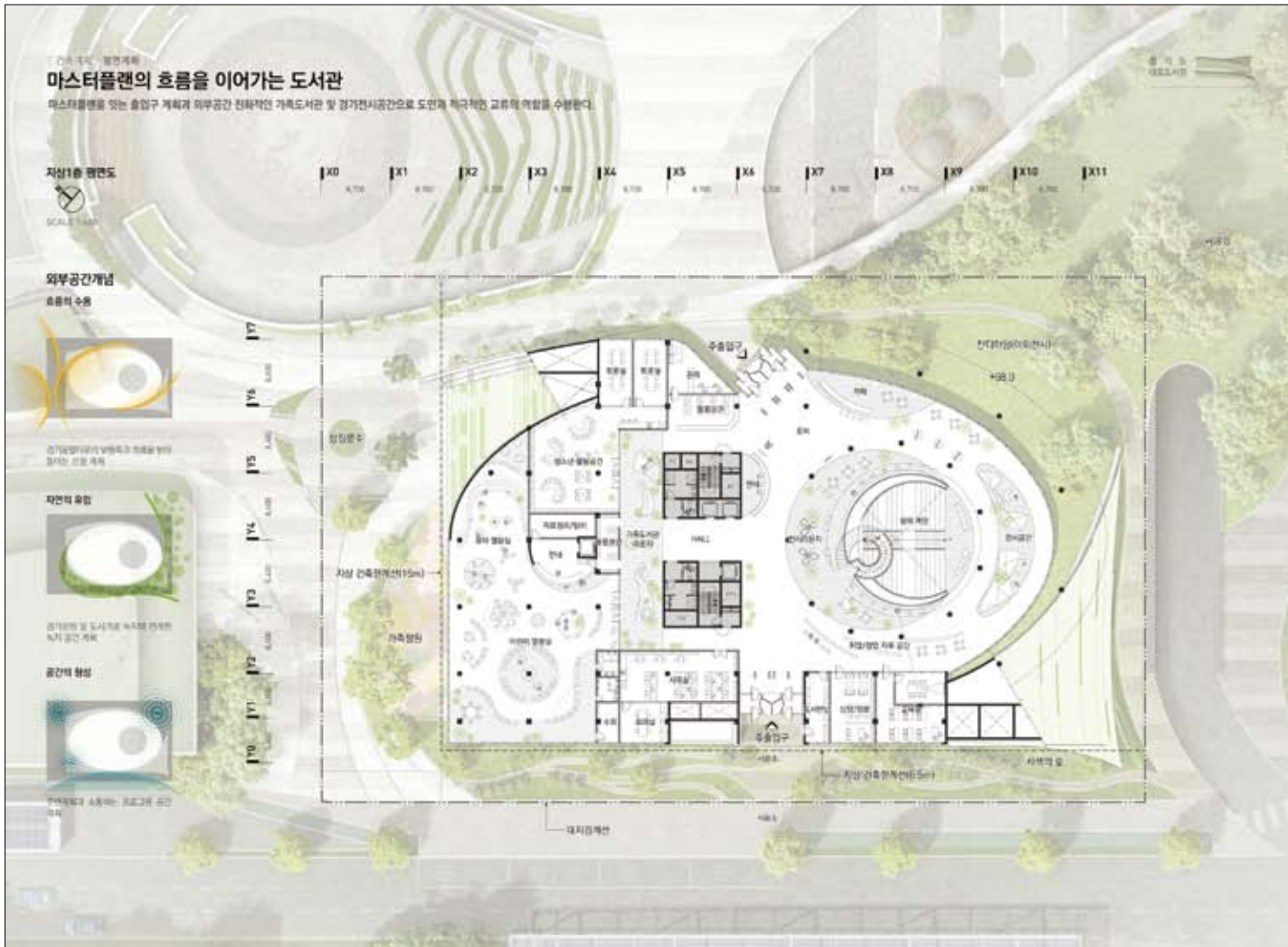
도서관의 기능과 형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으며, 미래에는 어떤 장소로 변화될 것인가? 자료를 보관하던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 그 성격이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에, 도서관이 어떤 장소성과 형태를 갖추어야 할가에 대한 질문들은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지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곳', '자기개발을 도와주는 지혜의 놀이터', '편안하게 이웃과 마주하는 대화의 시장'이라는 새로운 정의는 이 시대의 대표적 공공장소로서의 도서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상과 정책 허브로의 교육 기능, 특수 기록물에 대한 전시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고려되었다. 경기 융합타운의 마지막 입주기관인 대표도서관은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마침표로, 선행계획들을 수용하는 타원의 매스를 통해 전체적인 조화와 완결을 구현한다. 주요 시설인 역사, 미래, 공공도서관의 영역을 나선형 슬라브로 연결하여, 층 간 구분이 없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부의 나선형 흐름이 외장으로 이어져 도서관을 감싸고 도는 녹지와 보행의 흐름과 함께 옥상의 하늘도서관으로 연결된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소장하는 고귀한 건축물이자 266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다.

Where did the function and form of a library originate from? And what kind of space would they form in the future?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issue of what kind of spatial quality or form should a library have in this era where libraries are expanding their function by transforming themselves from a place for archiving into a place for exchan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these questions have developed into the main agenda of this project. New definitions such as 'a place for information-based intellectual exchanges', 'the playground of wisdom for self-development' and 'a communicative marketplace for casual interaction with neighbors' describe libraries which are being regarded as an iconic public space in this era. Symbolic images that represent Gyeonggi Province, educational programs required to become a policy control tower, and exhibition programs for special archival materials are proposed so that the new library can become an iconic landmark for Gyeonggi Province. Representative Library, the last tenant to move into Gyeonggi Hybrid Town, is the last piece that completes the master plan, and its oval mass embracing already implemented programs achieves harmony and attains completeness. Main facilities including History, Future and Public Library sections are interconnected with spiral

slabs so that they can appear as a single continuous space without boundaries between floors. This spiral flow inside extends to the external skin and meets the green area and pedestrian path that encircle the library building; they together continue to run until they reach Sky Library on the rooftop floor. Gyeonggi Representative Library is a noble architecture hous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f Gyeonggi Province. Also, it will serve as a main body that determines the policies and direction of 266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while providing a heartwarming and comfortable place for 13 million people in Gyeonggi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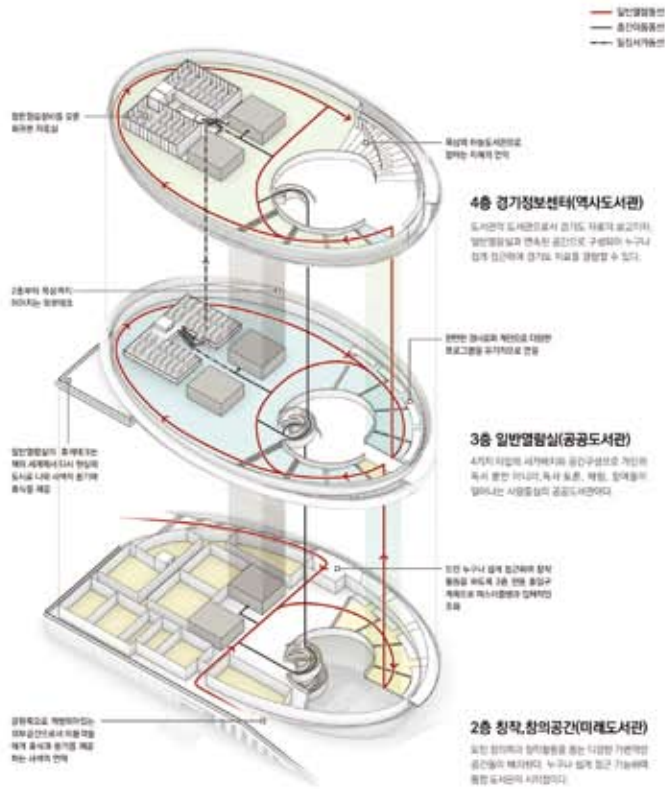
**Prize winner** HAEAHN Architecture, Inc., Kim Taeman **Location** Yeongtong-gu, Suwon, Gyeonggi-do **Site area** 6,824.00㎡ **Building area** 4,054.51㎡ **Gross floor area** 30,990.39㎡ **Landscaping area** 1,475.87㎡ **Building coverage** 59.42% **Floor space index** 169.47% **Building scope** B4, 5F **Structure** RC, SRC **Exterior finishing** Aluminium sheet, Louver, Low-E tripl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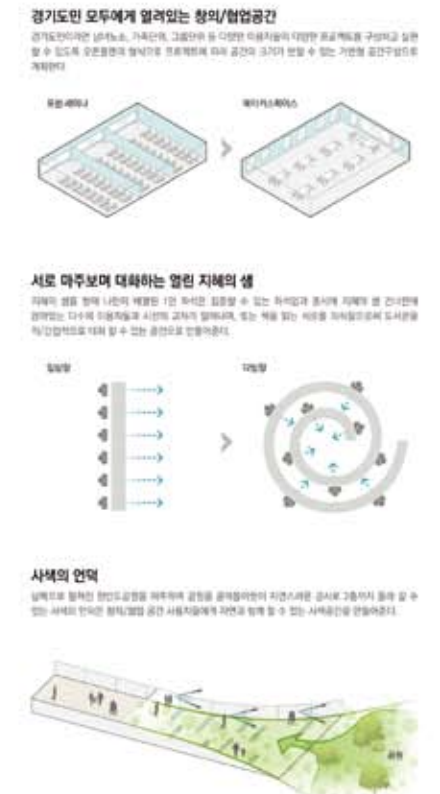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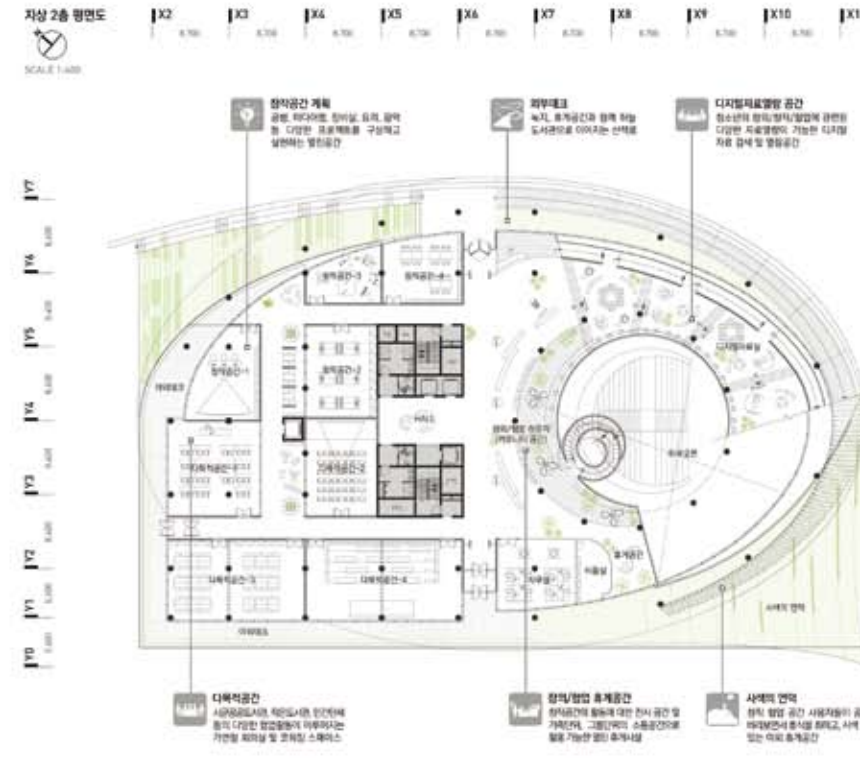
2층부터 4층까지 연계된 통합도서관

이용자들은 나선형 공간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열린 도서관에서 다양한 특성의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미래 세대를 배려한 체험하고 활동하는 창작도서관

오래동안 형식의 가변성 창작공간 및 다목적공간은 경기도도 모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할 수 있다.



토론과 소통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일반열람실

이용자의 유형을 고려한 자유로운 공간구상으로 도민의 창의력과 창작활동을 돕는다.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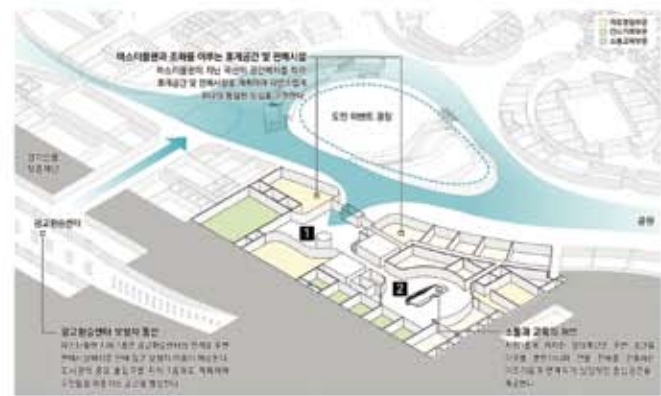
마스터플랜에 녹여진 계획은 모든 방향으로 접근을 고려한 다면성의 발상을 갖는 공공도서관이 된다. 도면이벤트공간과 연계된 달마산의 다채로운 이벤트적 장소이며, 공원으로 열린 옥상데크는 또 하나의 열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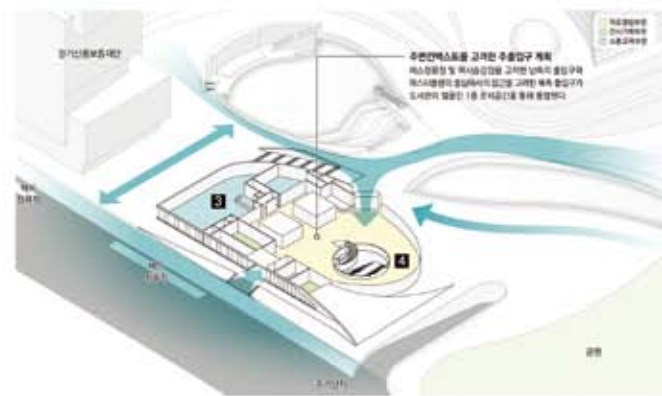
사람과 도서관을 이어주는 마중의 공간

대성지의 지체1층은 공공도서관이라 수변전시관, 도면이벤트공간 계획으로 방문 보행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지체1층과 1층을 잇는 유계로 인식하고 도면들을 마중하는 공간을 제안한다.

지하 1층 공간계획



지상 1층 공간계획



누구나에게나 열린 마중의 공간

넓은 입구로 들어가서 다양한 볼거리, 휴식처를 통해 쉽게 접근성있게 도서관으로 진입하는 이용자 모두가 편안하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디자인을 공간에 접목을 한다.



배움과 교류의 중심이 되는 창의라온지 조성

교육과 창의력이 인공하는 문화 공간 유닛으로 다양한 학습공간과 특화된 교육용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창의라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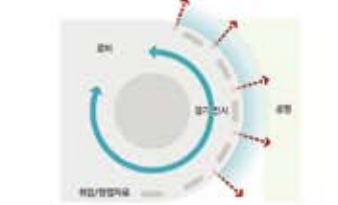
자연에 둘러싸인 가족 도서관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가족도서관은 이용자의 휴식과 교류의 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화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창의라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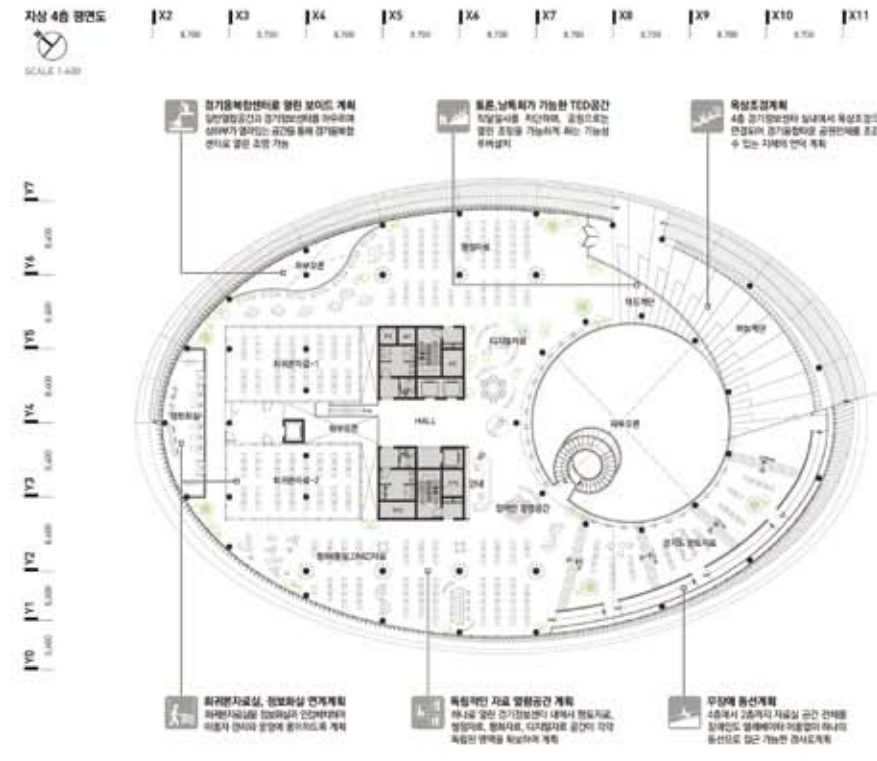
공원을 바라보는 전시공간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전시공간은 문화의 향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열린 경기정보센터

오존층의 공간구성은 경기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게 한다.



독립적인 구분과 유기적 연결의 경기자료열람 조닝계획

4차 산업의 경기도 자료열람센터는 열린 공간에서 구현된 독거자세로, 열람센터와 연차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3차원의 경기도 자료열람 센터로서 도서관열람과 연차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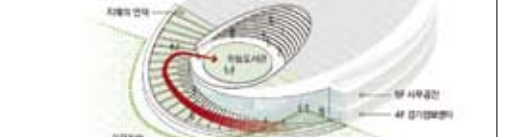
보관 자체로서 전시의 역할을 지니는 희귀본 자료실

보관 자체로서 전시의 역할을 지니는 희귀본 자료실은 4차 산업의 3차원 전시의 역할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층간 연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시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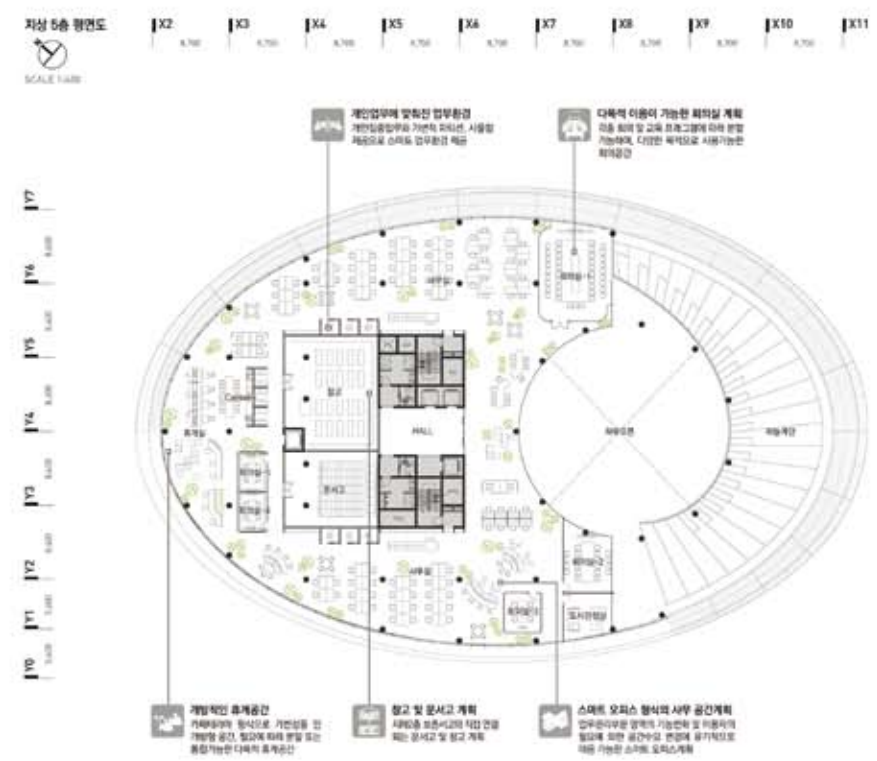
하늘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지체의 연막

하늘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지체의 연막은 지체 간 연결을 위한 계단, 디딤돌, 기둥의 일부로 구성된 공간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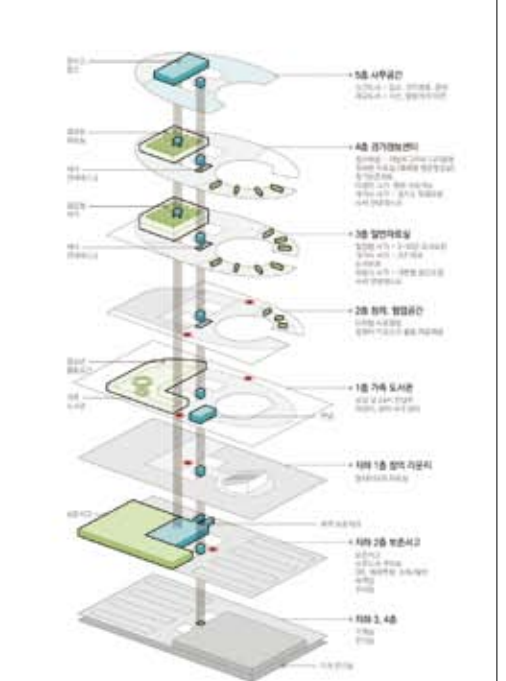
스마트 업무환경과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사무공간

사용자가 유기적 연대가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도서관에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서비스를 구현한다.



도시의 생애주기에 따른 효율적 관리 시스템

도시의 생애주기에 따른 효율적 관리 시스템은 도시의 생애주기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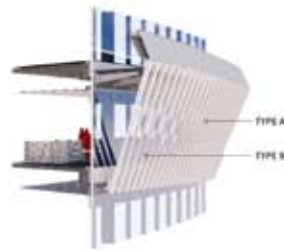


대표도서관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친환경 외관계획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한 수직부채의 계획으로 최적의 조도를 확보하고, 조망을 고려한 리듬감이 있는 외치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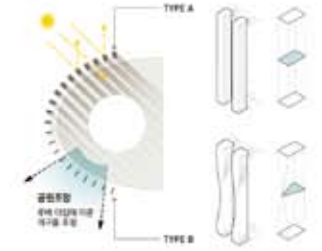
직달일사 차단 및 조광 확보

변동하는 태양 수직부채를 통해 실내 채광은 50.7% 이상이며, 직달일사 차단률 99%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조광범위와 조도에 따른 개구부 조절

태양 각도에 따른 개구부 조절을 통해 실내 채광은 50.7% 이상이며, 직달일사 차단률 99%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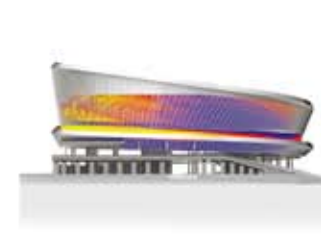
기능과 미학을 합친 상징적 외피

기능과 미학을 합친 상징적 외피를 통해 최적의 채광을 확보하고, 조망을 고려한 리듬감이 있는 외치를 적용하였다.



도서관에 적합한 실내 환경 구현

인공조명 대신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시각적 편안함을 확보하여 최적의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소통의 중심이자 친환경의 공간인 지혜의 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행방이 있는 친환경적인 상징을 활용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을 설계시스템과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생산하는 제로에너지(ZERO) 도서관을 제안한다.

